

[사회]

조선대 정이사 전환 결정

내년 1월3일부터...이달중 교육부에 이행계획서 제출

지난 19년간 임시(관선)이사로 운영돼 온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내년 1월3일 정(正)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본보 10월14일자 7면>

조선대학교 이사회(이사장 김용채 변호사)는 29일 대학 이사장실에서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내년 1월3일 현 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 이사 체제로 전환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감사 등 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이달 중 교육부에 정이사 전환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상화 원장은 ▲박철용 전 총장 등 옛 경영진의 철저한 배제 ▲대학 설립 정신의 구현 ▲학내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미래지향적 가치 충족 등이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광주 외고 설립 '금물살'

교육부 "시교육청과 사전 협의 재개"

특목고 폐지 여부 내년 6월까지 유보

광주 외국어고 설립에 파란 불이 켜졌다. 그러나 2010년 3월로 계획된 개교 일자는 유동적일 수 있다.

2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외국어고의 경우 현재 설치되지 않은 시·도에 한해 우선 협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외고 설립 사전 협의를 전면 유보한 이후 제자리 걸음 중이던 광주외고 협의 절차가 금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간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6월 광주시 동구 선교동 3만6천363㎡(1만1천여 평)의 부지에 24학급·720명 규모의 외고 설립안을 확정, 학교법인 태성학원을 후보자로 선정하고 교육부에 협의를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없이 시간만 흘렀기 때문이다.

교육부 상설재 교육복지정책과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발표에 따라 광주시교육청과의 사전 협의가

■특목고 체제 개편 방안

구분	제1안	제2안
특목고 유형	특목고 폐지	특목고 유지
공·농·수산·해양	특성화고로 전환	특성화고로 전환
과학고	점진적으로 영재학교로 전환	특성화고로 전환
외국어고	국제고로 통합 특성화고로 전환	외국어고·국제고 유지
예술고	일부는 영재학교로 전환 일부는 특성화고로 전환	일부는 영재학교로 전환 일부는 특목고로 존속
체육고	특목고 유지	특목고 유지
학생선발 방법 및 교육과정 운영	평준화, 지역의 국제고(외고) 설치와 후속정책 도입	일반전형은 선별제도 유지 특별전형 경쟁
특수교육	특별전형 경쟁 국제고 전용 다양화	전통고와 심화교육 강화 외국어고 전용 다양화
관리체제 개편	사·도 교육청 자율성 확대 교육감 자율로 특성화고 신설 허용	교육부의 관리·감독 강화 특목고의 신설계획 관리

재개되었지만, 지난 6월 제출했던 외고 설립 및 운영 계획서의 미비점들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지향하는 학생 선별, 교육과정 운영계획, 평가·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교육부의 협의를 끌어낸다면 당초 계획했던 2010년 개교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며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특목고 신설에 대한 설립 인가를 내년 6월까지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 외고 가운데 자연계 과정, 외대 준비반 등 편입 운영을 한 학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특목고를 폐지하고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제1안과 특목고 형태를 유지하되 보완하는 제2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2008년 6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일부 고교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학년당 2과목 이상, 과목별 3~4단계로 세분화한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고, 학교에 늘어나는 데 따른 강사로 지원도 올해 14억원에서 내년 36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학년제 수준별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교과 특성화과정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가을 찬바람 10월 30일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 한때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 조금	8~17℃
주요	구름 조금	9~16℃
포항	구름 조금	10~17℃
안동	구름 조금	9~16℃
대구	구름 조금	6~17℃
부산	구름 조금	7~17℃
울산	구름 조금	7~17℃
충청	구름 조금	6~17℃
전주	구름 조금	7~16℃
전남	구름 조금	7~17℃
제주	구름 조금	5~17℃
남해	구름 조금	11~15℃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남해동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04:29 썰물 < 09:40
여수 밀물 < 11:48 썰물 < 05:03

▲해돋이 06:51 ▲해질 17:41 ▲달돋이 21:03 ▲달질 11:32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31(수)	1(목)	2(금)	3(토)	4(일)	5(월)
날씨						
최저/최고	6/18	8/17	6/14	5/16	6/17	8/17

연세대 총장 부인 2억 수수 논란

편입학 청탁 돈거래 의혹

연세대 정창영 총장의 부인이 대학 편입학과 관련해 부정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신문은 29일 정 총장의 부인 최모씨가 지난해 11월 학부모 김모씨로부터 딸을 연세대 치의학대에 편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정 총장은 "아들이 사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집사람이 아는 사람에게서 돈을 차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입학 관련이어서 바로 돌려줬다"며 입학 청탁 명목인 줄 모르고 돈을 빌렸다가 곧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김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A씨를 통해 연세대 '기부금 입학'을 문의했으며 며칠 뒤 최씨가 A씨 집에 찾아오자 4천만 원씩 들어있는 통장 5개를 전달하는 식으로 2억원을 최씨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김씨는 딸이 올해 1월 연세대 편입학 전형 필기시험에서 탈락하자 최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했으며 돈을 다 써버렸다는 이유로 최씨가 반환을 미루자 '총장을 직접 찾아가겠다'고 강경 대응해 최씨 비서 명의로 2억원을 도로 입금받았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하지만 편입학 청탁을 위해 돈을 건넸다는 김씨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준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부모·교사 함께 취업 홍보 광주전자공고(교장 김성영)에 학부모와 교사로 구성된 '취업 홍보단'이 됐다. 이들은 11월 말까지 자동차·기계·전기전자·디자인·환경 관련 우수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100곳을 방문, 자녀들의 취업 홍보 활동에 나선다.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사립대 총장들 "로스쿨 2천명안 반대"

사립대 총장들이 정부의 로스쿨 총 입학정원 2천명 수정안에 반발해 "정부가 3천200명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29일 말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이날 오전 서강대 총장, 한국외대 박철 총장, 중앙대 박

을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응'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을 비롯해 성균관대 서정돈 총장, 한국외대 박철 총장, 중앙대 박

범훈 총장, 고려대 심광숙 부총장, 한양대 윤달산 부총장 등 20개 주요 사립대 총장과 부총장이 참석했다.

손 총장은 "30일 로스쿨 인가 기준이 확정 발표되면 국립대 총장들과 협의해 함께 대응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사립대 총장들이 총정원을 3천200명으로 증원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라며 29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故 오승운 화백 그림 위작범들 천경자씨 작품도 위작 시도

광주경찰청 수사

고(故) 오승운 화백의 '오방색(五方色) 풍수화' 시리즈 모사 위작(模寫 偽作)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은 29일 오 화백 위작범들이 국내 다른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위작하려 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본보 10월2일자 7면>

경찰은 오 화백의 그림을 베껴 이 중에 내다 판 혐의로 붙잡힌 이모(45·인쇄소 직원)씨 등이 오 화백 작품을 위작하면서 ▲우성(宇城) 변시

지 ▲천경자 ▲고(故) 최영림 화백 등의 작품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씨 등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단순한 선(線) 중심의 오 화백 작품과는 달리 변 화백·천 화백의 그림은 위작이 훨씬 힘들어 중도 포기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씨 등은 오승운 화백의 '오방색(五方色) 풍수화'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1일 경찰에 검거돼 27일 구속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건배 前 해태 회장

형량 협의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한주 부장판사)는 29일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1997년 해태그룹 주요 계열사 부도처리 이후 기업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플러스에프앤씨를 통해 기존 해태그룹 위장계열사 6

곳을 경영하면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계열사에서 35억4천여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해 위장계열사의 돈을 자신의 '쌈짓돈' 인양 사용하고, 인출된 돈을 26개 차명계좌를 통해 세탁하는 등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주도면밀함으로 보였으며 기소 이후에도 매월 700만원 이상을 고문료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사했다.

/연합뉴스

10월 30일은 저축의 날입니다.

저축하는 생활은 내가정 내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초생활입니다.

맛갈니는 음식과 화려한 분위기 한잔에 한잔을 더하면 기분 좋은 술, 흥겨운 소리에 호화 찬란한 대형 건판 조영들, 우리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면 우리의 경제생활은 평생 건강합니다.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축을 생활화해 내가정, 내지역, 내 조국을 건강하게 만듭시다.

한국은 행복포본부
한국산업은행목포지점
농협중앙회목포신안시군지부
우리는 행복포지점
SC제일은 행복포지점
하소는 행복포지점
중소기업은행목포지점
국민은행목포지점
한국외환은행목포지점
신한은행목포역지점
수협중앙회목포지점
광주우체국은 행복포지점
신용보증기금목포지점
기술신용보증기금목포지점
한국감정원목포지점
금융결제국목포지점

에아를저축은행목포지점
목포해상호저축은행목포농업협동조합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목포무안신안축산업목포지점목포무안신안축산업산정지점목포원예농업협동조합골별신용협동조합목포대성신용협동조합목포신용협동조합목포약사신용협동조합목포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북교신용협동조합용해신용협동조합